

월 30만원 내던 종신보험료… 어느 날 3만원으로 줄었다면?

머니S 전민준 기자 | 입력 : 2022.02.14 08:05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매월 30만원 내던 종신보험료가 어느 날 3만원으로 줄었어요.”

수년 내 종신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수 있는 이야기다. NH농협생명이 14일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무)’을 출시했다.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무)은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제활동기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이후에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객이 스마트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이날 NH농협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에는 ‘스마트페이 납입구조’라는 독특한 납입방식을 도입했다. ‘스마트페이 납입구조’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2개로 구분해 최초 제1납입기간인 3년 동안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한다. 제2납입기간에는 1납입기간의 10%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50세 남자가 1종 일반가입, 5년납,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가입금액 1000만원에 가입했다면 제1납입기간인 3년 동안은 월32만1800원을 납부하고 제2납입기간동안은 3만2180원을 납부한다.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사망 당시까지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와 추가납입적립금을 합쳐 지급한다. 제2납입기간에 주계약 보험료의 1배만큼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특약을 통해 건강질환에 관한 보장도 챙길 수 있다. 뇌혈관질환보장특약(무)으로 뇌혈관질환 및 뇌출혈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허혈성심질환보장특약(무)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해 보장도 가입할 수 있다.

스마트페이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에 가입한다면 특약 보험기간 중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다면 주계약 및 해당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을 선택한다면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대비 약 9% 보험료가 저렴하다.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가입형도 추가했다.▲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의사의 필요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 절개 포함) 여부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여부 등 세 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5년, 6년, 7년 세 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가입은 남성 최대 72세, 여성 최대 70세까지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25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한 신상품은 은퇴 이후 보험료 납입이 걱정될 수 있는 고연령대를 위해 출시했다”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많은 분들이 보험가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강연회유료입장 1만명 물린 전문가는 누구?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